

「タバコ(담배)」를 피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인 저의 생각은 공공장소에서의 흡연과 무분별한 광고에 대해서 정부의 강경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우리들은 모두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이나 음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호식품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タバコ(담배)」도 그중의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담배를 피는 것도 스스로 결정해야만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취향에 맞춰 기호품을 선택하고, 또 그것을 즐기는 것은 자유이고, 인간으로서의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자유와 권리에 의해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다면, 그것은 참된 자유도 권리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에게 피해를 끼칠수 있는 공공장소에서는, 담배를 피워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껏,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 보다 피지 않는 사람이, 훨씬 많은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겠죠.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복지에 책임질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직접 담배를 피는 사람보다 간접흡연을 하는 사람이 훨씬 유해한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에 대해서 강력히 규제를 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タバコ(담배)」가 몸에 나쁘다는 것과 건강을 해친다는것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알리고, 국민스스로 자신을 지킬수있도록 해야합니다.

어쨌든 저의 결론은, 공공장소에서의 흡연과 담배 광고에 있어서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으로 강력한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